정형돈 '오빠게티' 히트칠까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제2930호 www.metroseoul.co.kr

프로농구 LG 정규리그 우승

돈줄 쥔 정부, 수가협상도 좌지우지

건보공단이 떠넘기자 의료단체에 패널티로 압박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⑧ 보건의료계 슈퍼 '갑'은 정부?

#1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의협 협상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도 무효화할 것'이라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이 복지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수 있는 '갑을' 관계의 새로운 확인인 셈이다.

#2 "9일 아침 갑작스럽게 새마을금고로부터 '정치적인 성격의 행사라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대관비를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외압이 개입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 새마을금고연수원을 대관해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 중이던 의협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자인 방상혁 간사의 말이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관 취소 통보 후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의사들의 의지를 정부가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라며 정부 외압설을 제기했다.

갑에게 도전하는 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갑의 압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에도 갑을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정부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0년간 건보공단과 체결은 한번 뿐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정부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균 전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보건의료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정부의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열린 수가 협상에서 딱 한 번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의 계약이 체결됐을 뿐 나머지 9번의 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기면 보건의료단체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갑의 횡포로 보건의료단체가 수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 관계자는 "수가 협상의 규칙을 어기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단체가 건보공단보다 높은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계약이 아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페널티로 인해 대한병원협회는 2010년 10월 건보공단이 제시한 1% 인상안을 받아들였으며 의협도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더 낮아질 수가를 고려해 2012년에 건보공단과 합의를 한 적이 있다. <3면에 계속>

야구야 반갑다! 프로야구가 5개월간의 겨울잠을 깨고 돌아왔다. 8일 4개 구장에서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일제히 열렸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9일까지 이틀 동안 총 6만7300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시범경기는 팀 간 2차전으로, 23일까지 팀당 12경기씩 치른다. 정규시즌은 29일 개막한다. /연합뉴스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5·18 묘역 참배하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외이사 모시기 권력기관 여전

10대 재벌 올 채용 10명 중 4명…방패막이로

10대 재벌들이 올해도 예외 없이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예년보다 더 노골적으로 권력기관 출신을 영입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외이사로 영입된 권력기관 출신들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오다 퇴직 후 재벌들이 만들어준 사외이사 자리에서 관계 기관 후배들에게 '전관예우'를 내세우며 기업에 대한 사정을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나서게 된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재벌 그룹들이 올해 선임하는 신임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청와대 수석이나 장·차관,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 93개사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하는 사외이사는 일부 중복 사례를 포함해 모두 126명이다. 출신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전체의 38.1%인 48명으로 가장 많다. 이 밖에 기업인 22명, 공무원 11명과 장·차관 6명, 판·검사 11명과 변호사 5명, 국세청 9명, 금융감독원 3명, 공정거래위 3명 등이다.

이 중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관료나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사법당국 등 소위 '권력 출신'은 46명으로 전체의 3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임을 제외한 신규 선임 사외이사들만 따질 경우에도 전체(69명)의 40.6%인 28명이 권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선임한 권력 및 그룹 관계자 출신 사외이사의 수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12명), 현대차(10명), 삼성(6명), 한화(5명), LG(4명), 두산(3명) 등의 순이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선임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10대 재벌 상장사들이 올해 재선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 21명 중 권력 및 그룹 관계자 출신 인사는 9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면서 관련법도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바람막이로 권력 출신 사외이사와 감사 등을 다수 선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차선 잘보이게 반사성능 강화

앞으로 새로 도로를 깔거나 도로 차선을 정비할 때 차선의 불빛 반사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야간 운전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9일 차선 등 노면표지 반사성능을 높인 '교통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24일부터 5주간 전국의 도로 노면표지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 시공 시 노면표지 반사성능 최소 기준이 백색 차선의 경우 130mcd에서 240mcd로, 황색은 90mcd에서 150mcd로, 청색은 6mcd에서 80mcd로 대폭 상향된다. 반사성능이 높아질수록 차선은 더욱 선명해진다.

경찰은 도색 비용 등을 감안해 차량 통행량이 많아 마모 속도가 빠른 차선 표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지자체 등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한국서 펄럭인 우크라이나 국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한 러시아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 볼모 명백한 법 위반"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9일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빚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보건소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준기자

민원·제안 통합 '응답소' 구축

서울시는 31개 민원·제안 접수 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통폐합해 전국 최초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를 구축했다.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신청 경로와 관계없이 응답소에서 다 듣고, 자신이 신청한 민원이나 제안을 일일이 개별 창구에서 확인할 필요 없이 응답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의 민원·제안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새 주소 문의, 분실물 조회 문의 등 단순 민원은 응답소에서 즉시 답변한다.

신당추진단 전체회의 10일 개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0일 국회에서 신당추진단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양측이 통합 방식에 최종 합의하면서 신당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야권 통합 신당의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8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통합 신당 세일즈'를 펼쳤다.

이어 10일 처음으로 신당추진단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안에 법적인 창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의에선 확대 개편 후 신당추진단에 새로 합류하는 양측 인사들이 모여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의 창당 작업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을 조율한다. 신당추진단 산하에 설치되는 새정치비전위원회, 정강정책분과, 당헌당규분과 등의 조직 인선도 이날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 mjkim@

뉴스&뉴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북한이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정치국의 렴철성 선전부국장 등 김정은 시대를 주도할 핵심 엘리트가 물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재, 인천시장 출마 포기

●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9일 출마를 접고 경쟁 후보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의 꿈'을 이제 유 전 장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상 진료대책 상황실 마련

서울시 금천구 보건소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한다.

또 휴진에 들어가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

사회적기업 실무자 대상 교육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6일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4년 서울시 지원계획, 월별 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됐다.

취약층 발굴위해 특별조사

서울시 중랑구는 9일 각 동 통장과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된 약 1300여명의 취약계층 발굴단을 활용,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구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발굴해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육사생도 3禁제도 풀린다

금주·금연·성관계…학교밖 허용키로

앞으로 육군사관생도들도 영외에서는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가 허용될 전망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 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 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 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창설 이래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되게 된다.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 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성 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 간 이성 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 교제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 교제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 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육군 관계자는 "3금 제도의 목적과 의미는 육사의 수련 정신이자 사관생도가 지향할 가치로 계속 유지된다"며 "음주와 흡연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현실화하지만 법규 위반 때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7일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원도 및 한국자살예방협회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재단과 강원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을 정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충동적 자살 시도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인사동에 나타난 왕인 박사 9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열린 '2014년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 캠페인에서 왕인 박사 캐릭터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왕인문화축제는 다음달 4일부터 나흘간 왕인 박사 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 등 영암군 일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올 사법연수생 연세대>고려대

최근 연세대 출신이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세대는 경영대가, 고려대는 법대가 강하다는 의미의 '연상고법(延商高法)' 구도가 깨졌다.

9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입소한 45기 연수생 298명 가운데 연대 졸업생은 43명, 고대 졸업생은 35명이었다. 연대 출신이 고대 출신보다 많아진 것은 연수원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 5년간 연수생 입소 추이를 보면 전체 입소자 3490명 중 서울대가 9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대 560명, 연대 426명 순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고대 84명, 연대 68명으로 꽤 격차가 있었다.

올해 연대의 '역전'은 지난해 11월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이미 감지됐다. 전체 306명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연대 43명, 고려대 41명으로 사상 처음 순위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대형 로펌 취업인원도 연대 출신이 더 많았다.

이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김민준기자

과다 교습비·선행학습 집중점검

교육 당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에서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선행 학습을 광고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신학기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원·교습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학원에서 교습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원에서 선행 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ydh@

담배 해악 경각심 현장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9일 담배 해악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각국 나라의 담배사진 패널을 제작하고 홍보 전단지를 3회에 걸쳐 제작,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이 공감하고 담배 소송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현장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 체험수기 공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감동적인 사례를 발굴해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산재보험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누구나 참여가 능하다.

응모 주제는 산재보험 혜택에 관련된 수기로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 몫도 포기하라"…잘못 보이면 최악 결과

<1면에서 계속>

더욱이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수가협상은 정해진 재정을 의협과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의 수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에 자칫 잘못 보이면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기적인 이익집단이라는 꼬리표가 생긴다. 2011년 병협이 2012년도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합의하지 못하자 8개의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을 질타했다.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 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한 모습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손진영기자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게임장 52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은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5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게임기 150대를 갖춘 강북구 소재 A게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점수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환전해준 혐의로 업주 등 3명을 검거하고 현금 222만원을 압수했다.

도봉구 소재 B게임장에서는 버튼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종업원 등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벨, 최초의 전화통화 성공

1876년 3월 10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실험 중이던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다. "왓슨군, 이리로 와주게. 자네가 필요해!" 세계 최초의 전화통화 실험을 준비하던 벨이 배터리용 황산 용액을 옷에 쏟는 바람에 엉겁결에 준비했던 통화의 내용이 아닌 엉뚱한 말을 외쳤던 것이다. 왓슨은 벨의 조수로 이날의 실험 통화를 위해 2층 실험실에 대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벨은 이 전화기의 발명이 같은 날 특허청을 찾았던 라이벌 엘리샤 그레이의 발명을 도용한 것이라는 오랜 소송에 시달렸으며 아직도 진실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캔으로 만든 드레스로 전시회

metro Russia

Мастер привёз платья из банок

캔과 알루미늄으로 아름다운 드레스와 가방, 구두, 왕관 등을 만드는 스페인 예술가 니코스 플로로스. 최근 그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전시회를 개최, 눈부신 드레스를 선보였다.

플로로스는 "뉴욕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 층층이 쌓여있는 캔에서 영감을 얻어 드레스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외형에만 관심을 가질 뿐 내적 본질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앤디 워홀처럼 기존 가치관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드레스 제작과 관련, "수집한 캔을 아주 얇은 층으로 자른 다음 조각으로 이어 붙이고 색을 칠해야 하기 때문에 한 작품을 만드는 데 일 년 이상이 걸린다"며 "특이한 제작 방식 덕분에 2003년에는 특허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만드는 드레스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페테르부르크에 전시되는 작품 가운데 오페라의 여왕 마리아 칼라스와 그레이스 켈리를 위해 만든 의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나 감지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시위중 가면착용 금지법 논의

metro Brazil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시위중에 가면을 착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알레그레시 의회가 '시위 중 가면 착용 금지법'의 도입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주제 포르투나치 시장은 앞으로 15일간의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정식으로 가결할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효력을 발휘한다면 경찰은 가면을 비롯해 얼굴을 가리는 물품을 사용하는 시위자는 체포해 마스크를 벗길 수 있다.

모니카 레아우 의원은 최근 시위에서 무분별한 약탈·파괴 행위가 계속되자 이번 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아우 의원은 "시위대가 박물관을 습격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며 "브라질 국기를 내리고 유리창을 깨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정말 아팠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손동완 인턴기자

탑승한 2명 도난여권 밝혀져

말레이시아 항공기 참사 테러 가능성 조사

8일 베트남 남부 해안과 말레이시아 영해 사이에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2명의 여권이 도난 신고된 것으로 밝혀져 테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실종된 여객기의 탑승자 목록에 있던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리아인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 이들의 도난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사고기 탑승자 명단에 올라있던 자국인 1명이 실제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사고기 탑승자의 여권이 2년 전 태국에서 도난 신고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여권의 주인은 현재 오스트리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통들은 테러범들이 도난 여권을 이용해 말레이시아항공을 납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항공은 사고기 조종사가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며 실종 직전 기내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도 테러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흐마드 자우하리 야흐야 말레이시아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조종사가 조난신호를 보냈다는 정황이 없다. 이는 비행기에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히삼무드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국가안보 기관과 정보기관이 나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기가 특정 세력의 공격으로 추락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승객 4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여객기가 2년 전 오른쪽 날개를 크게 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 항공 전문가 베르나르 샤베르는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항공기가 2012년 상하이공항 이착륙장에서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고 때문에 광범위한 수리를 했다. 오른쪽 날개의 일부 부품은 교체해야 했다"면서 "2년 전 사고를 이번 사고와 직접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항공기의 남은 기체 수명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탑승자의 유족이 8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공항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바비인형 심벌 '눈길' 8일(현지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한 설치미술가가 365개의 바비인형으로 여성을 상징하는 거울 모양의 심벌을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AFP 연합뉴스

러·우크라이나 고위관료 접촉

오바마 서방6국 정상과 통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거로 긴장이 고조된 뒤 처음으로 8일(현지시간) 양국 고위관료들이 얼굴을 마주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과 블라디미르 옐첸코 주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날 만나 양국 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으나 크림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러시아는 친러시아 성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실각 후 들어선 친서방 과도 정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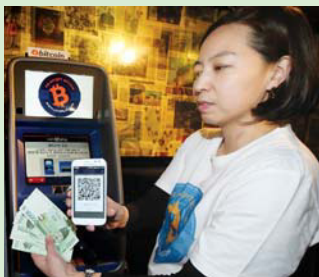
이날 면담은 크림반도에서 양국 간 무력 충돌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전날 러시아 군용 트럭에 탄 무장 괴한들은 한때 세바스토폴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방어기지를 포위했다. 하지만 무력 충돌은 없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러시아가 먼저 군대를 철수하고 국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이날 영국과 프랑스 등 6개국 정상들과 연쇄 전화 회담을 했다. /조선미기자

환경보호 2년간 400조 투입

중국이 환경보호 분야에 앞으로 2년간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샤오칭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5년 말까지 2조5000억 위안(약 434조원)을 환경보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한 해만 1조7000억 위안(약 295조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1조6000억 위안(약 278조원)을 넘는 규모다. 특히 중국은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투자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지난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처럼…비트코인 ATM 국내 첫 등장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자동입출금기(ATM)가 국내에서 처음 등장했다.

비트코인 전문기업 코인플러스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관 지하의 세도나 커피숍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고 시연 행사를 열었다. 서비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 ATM을 사용하면 전자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 원화로 즉시 찾아갈 수 있고, 현금을 넣어 비트코인을 충전할 수 있다.

이용법은 간단하다. 비트코인 판매를 원하면 먼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의 전자 지갑 QR코드를 띄워 ATM에 인식시킨다. 그다음 판매하려는 액수를 기계에 입력하면 즉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KT 황창규 회장 "원점서 다시 시작"

1200만 가입자 정보유출에 "관계자 엄중 문책…재발 방지 총력"

황창규 KT 회장이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 악재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황 회장이 취임한 뒤 KT ENS 사기 대출 사건,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영업정지,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1200만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연속된 악재를 맞았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발생한 악재를 정리하는 가운데 발생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춰지고 있다. 현재 KT는 이전 회장 시절 문제를 빚은 '무궁화 3호 위성'의 재매입, 약 1조원에 달하는 사업·정보 시스템 전환(BIT) 프로젝트의 백지화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KT샛이 홍콩 ABS에 정부 승인 없이 헐값에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의 경우 재매입 비용을 놓고 난항을 겪으며 현재 미국 뉴욕의 국제중재위원회로 회부됐다. BIT 프로젝트는 2009년 KT와 KTF 합병 이후 추진한 영업전산시스템을 비롯해 경영정보, 시설, 서비스 등 KT의 모든 IT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으로,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안정성과 보안성에서 문제가 지적되며 결국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여기에 KT ENS 영업담당 직원이 협력업체 7개 회사와 공모해 금융권으로부터 30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번지며 황 회장의 경영 혁신 행보에 발목을 잡았다.

지난 6일에는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이 발생, 12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황 회장은 직접 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발 빠른 수습에 나섰다. 황 회장은 7일 "2012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황 회장은 이어 "제가 새롭게 경영을 맡은 이상 과거의 잘못은 모두 새롭게 매듭지어 '1등 KT'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고 관련 내용도 조속히 규명할 것"이라며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해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 변경이 전면 중단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속된 악재가 KT의 장기적인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과연 황 회장이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사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모델이 10~14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빗(CeBIT) 2014'에서 TV, 스마트폰, 카메라 등 다양한 삼성 스마트 기기에서 앱을 이용해 출력 문서의 공유 및 바로 출력이 가능한 '삼성 클라우드 프린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미래의 문서' 프린트하는 삼성

독일 '세빗 2014' 참가 클라우드 프린트 공개

삼성전자는 오는 10~14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 '세빗(CeBIT) 2014'에 참가해 프린팅 솔루션 사업의 전략을 소개하고, 신제품과 신규 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선 삼성전자는 9일 하노버 엑스포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의 문서(Document of omorrow)'라는 주제로, 삼성 프린팅의 혁신과 중장기 비전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 클라우드 프린트' 서비스와 '삼성 녹스(KNOX)' 연동의 보안기능, '근거리 무선통신(NFC) 프린터 신제품' 등을 대거 공개했다. '삼성 클라우드 프린트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지인이 자동으로 검색되며, 상대방을 지정해 문서를 공유·출력할 수 있다.

김기호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장은 "기업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용 편의성과 보안 요구를 충족시켜 '기업간거래(B2B) 모바일 프린팅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sgit@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번역 중

국내 금융기사에 외신 관심

외신기자들이 때아닌 기사 번역 고민에 빠졌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일단 '경미한 처벌'을 뜻하는 영 숙어인 'slap on the wrist(손바닥으로 손목을 툭 치다)'를 쓰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금융 당국은 "이것도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은 아니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사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 표현을 두고 외신기자와 금융 당국이 골몰하는 것이 한국 독자에겐 언뜻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한국 기사를 해외 독자에게 알리는 한 외신매체의 기자는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한국 이슈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부분의 국내 이슈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거의 없어서 이를 영어 기사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가 해외에서도 화제로 떠오르고 마침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외신에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다 보니 이런 고민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어렵거나 혼란의 여지가 있는 금융 용어의 외국어 표현을 지도하는 금융 당국의 담당 부서는 고민에 휩싸였다.

임지연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팀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이처럼 옮겨 쓰도록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표현도 정확하진 않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적으로 더 적확한 번역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역에서 헷갈리기 쉬운 금융 용어 114건을 정리한 용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다만 용어 위주의 명사만 다루고 있으며 국내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다양한 표현을 제시하는 노력은 미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정기자 hjkim1@

market index <7일>

코스피 1,974.68 (−0.94)

코스닥 543.76 (+3.43)

금리(국고채 3년) 2.90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61.20 (−3.80)

뉴스&뉴스

14일 116개사 주주총회

● 삼성전자 등 12월 결산 상장법인 116개사가 오는 14일 대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주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5곳과 코스닥 상장사 26곳, 코넥스 상장사 2곳 등 모두 133곳이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상장사들이 이처럼 동시에 주주총회를 열면 두 곳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참여가 어려워져 재벌 그룹들이 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등이 도입됐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두탁기자

동부그룹 자구계획 '흔들'

● 동부그룹의 자구계획 이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9일 '동부그룹 자구계획 진행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동부그룹의 자구계획 이행이 지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부그룹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구계획 중 매각 대상 자산의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 편입 방식이 아닌 개별매각 방식으로 추진돼 그룹으로 자금 유입 시기가 늦어지며 재무 안정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부메탈 지분 매각 ▲동부 당진항만운영 파이낸싱 관련 투자자 모집 ▲동부특수강 기업공개(IPO) 등의 진행 상황 감안시 자금유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

로또복권 제58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8	15	22	25	41	3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889,342,0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5,995,002
3등	5개 숫자 일치	1,436,62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부실 대기업’에 발목 잡힌 은행

올해 당기순이익 7조4000억 ‘부진탈출’ 전망… 22조 채권 ‘복병’

지난해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은행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은 기업의 부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모두 지난해보다는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손비용 또한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2014년 은행들은 이자이익 38조원, 비이자 이익 2조5000억원, 충당금 전입액 9조2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 7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고용지표, 주택가격지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양적완화 축소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그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은행의 정상화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가 맞아떨어지면 은행으로서는 지난해의 부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은 낮아

문제는 기업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다. 은행권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올해 회복을 노리는 은행에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경기 개선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관계 기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대기업의 부실 현실화다. 2013년 9월 말 현재,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이며 같은 기간 기업 부문 부실 채권은 22조원으로 85.7%나 차지한다.

금융연구원은 부실 비율 200% 이상 대기업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 당국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확대,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 부실 위험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금융연구원의 관계자는 “은행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능력 강화 노력과 함께 가계대출의 연체 정리 및 부실 규모 축소는 물론 대기업 부실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주요국 통화정책 금융가 최대 변수”

올해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외신들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큼,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대상이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지난해 금융시장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양적완화로 증권과 채권시장의 희비가 갈렸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해 52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1년 동안 27% 상승했다. 일본 증시는 지난 1972년 이후 최대인 57% 급등했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증시도 18~25%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 금리가 올랐다는 의미다. 대표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다.

세계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연준의 경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연준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 경제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제 현상은 연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역시 미 연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를 견딜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면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 속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코엑스몰 “기프트박스 쏩니다” 코엑스몰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플라자에서 소프트 오픈을 맞아 ‘마젠타 기프트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5, 16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5만원 이상 구입고객에게 여행항공권, 아이패드 미니등 다양한 경품이 무작위로 담긴 선물상자를 증정하는 행사다. /연합뉴스

120조 특금시장 아슬아슬

금융가 사람들 ■우리금융경영硏 양진수 연구원

적자늪 증권사 발행 과도 외부 충격땐 손실 도미노

최근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발행 물량이 과도해 금융 당국의 리스크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금은 동양 사태에서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 문제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힌 금융 상품이다.

양진수(사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6일 중구 본사에서 가진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래 침체로 수익 악화를 겪는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성 차원에서 특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특금 약정 규모가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어 향후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증권사 간 연쇄적인 손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양 사태가 불거지긴 했으나 본래 특금은 기업과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 투자가 중심인 시장이다. 과거 은행 위주로 발행이 이뤄졌으나 최근 은행들이 자본규제에 보수적인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증권사 특금 잔액은 2009년 5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20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 중에서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년간 31.1%에서 52.1%로 커졌다. 특히 ABCP 발행이 급격하게 늘었다.

ABCP는 부동산·매출채권·유가증권·주택저당채권 등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CP의 한 종류다. 이 기간 CP 증가폭의 80%를 점할 정도로 최근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양 연구원은 “물론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됐으므로 당장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다만 현금성 자산인 만큼 증권사가 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BCP의 수익 구조는 100만원짜리 1년 만기의 회사채를 담보로 3개월짜리 CP를 4차례 돌리는 식이다. 3개월마다 100만원 규모의 CP 상환이 돌아오는 셈이므로 기초자산인 회사채 만기 때까지 사슬처럼 엮인 CP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가 높은 수익률을 위해 복잡한 파생 상품을 ABCP에 경쟁적으로 담는 추세에도 경각심이 제기됐다.

양 연구원은 “파생 상품의 수익 구조가 복잡할수록 리스크 발생 시 손실이 어디로 귀결될지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그는 “신용평가사가 동양을 제외하곤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한 것도 의문”이라며 “증권사 특금의 잠재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해 반영한 것인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

HNT 하나투어리스트
봄맞이 대잔치
마감임박
모험이 가득한 세상! 동남아여행
특가 01 방콕/파타야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299,000부터 ●방콕(1)-파타야(2)
특가 02 대만(야류,온천,화련)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679,000부터 ●타이페이(3)
특가 03 캄보디아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649,000부터 ●씨엠립(2/3)
특가 04 휴양지의 여왕 푸껫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399,000부터 ●푸켓(3/4)
특가 05 신들의 섬 발리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6일 529,000부터 ●발리(3/4)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일본여행
특가 01 규슈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399,000부터 ●후쿠오카(1)-유후인-벳부(1)-아소-구마모토(1)-후쿠오카
특가 02 오사카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499,000부터 ●간사이(1)-고베-오사카(1)-아라시야마-교토-오사카(1)-나라-간사이
특가 03 북해도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529,000부터 ●치토세-삿포로(1)-노보리벳츠-도야-기타유자와(1)-오타루-조잔케이(1)-치토세
특가 04 오키나와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699,000부터 ●오키나와(3)
특가 05 아오모리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579,000부터 ●아오모리-히로사키(1)-고쇼가와라-카즈노(1)-도와다-미사와-아오모리(1)-인천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중국여행
특가 01 북경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220,000부터 ●북경(3)
특가 02 상해/항주/주가각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249,000부터 ●상해(1)-항주(1)-주가각/상해(1)
특가 03 장사/장가계/원가계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699,000부터 ●곤명(3/4)
특가 04 곤명/석림/구향동굴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649,000부터 ●푸켓(3/4)
특가 05 홍콩/마카오/심천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569,000부터 ●홍콩(1)-마카오(1)-심천(1)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강남점 1600-6963
신분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 뚜르드카페 내 위치
www.hanatourist.com

월세소득자 '상가로!'

임대차 대책 이후 주택 투자 대안… '대형건설사' 따져야

지난달 26일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집을 사볼까 했던 사람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아예 주택 처분은 물론 대체 투자처를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월세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에 대한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월세 주택 공급 증가로 11개월째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까지 늘게 되자 비교적 투자 전망이 밝아 보이는 개발지구 내 상가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상가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높았지만 이번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부쩍 문의가 늘었다"며 "단순히 세금 문제만은 아니고 월세 수익률 하락,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지구에 분양하는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어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막대하다.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공사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존재한다. 기존에 계약자가 시행사와 맺었던 수익률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바뀐 시공사가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무 안정성을 갖춘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상가'를 추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도 위험이 적은 것은 물론, 계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주택시장에 찬물 끼얹은 전·월세 대책 연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로 활기를 띤 주택 시장이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으로 다주택자들의 투자심리도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가장 믿을만한 보험사, AXA"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넘버원 보험사는 AXA라는 결과가 나왔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권위 있는 브랜드 조사기관인 인터브랜드 선정 보험 브랜드 1위를 5년 연속이나 받은 것.

AXA가 세계 1위를 그것도 5년 연속 이뤄낼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AXA의 탄탄한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실체는 198년의 역사성이다. 대한민국엔 보험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인 1817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0여 년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두 번째는 1억 명의 고객 수다. 전 세계 61개국에 진출한 AXA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를 포함해 1억200만여 명의 고객의 보험을 책임지며 다양한 만약을 경험해왔다.

AXA는 이러한 실체를 바탕으로 2014년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박정원기자 pjw89@

kt금호렌터카 회원 60% 할인

꽃샘추위가 시작됐지만 남쪽 지방에서 들려오는 개화 소식에 많은 여행객들이 봄나들이 준비로 분주하다. 전국 170여 개 최대 영업망과 9만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렌터카 1위 브랜드 kt금호렌터카(대표 표현명)는 봄나들이를 떠나는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 여행자들이 반가워할 프로모션이 3월 한 달간 진행된다. kt금호렌터카 회원이라면 누구나 내륙 전 지점(공항지점 제외)에서 2400cc 이상 승용차량 대여료를 평일 60%, (공)휴일 55% 할인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렌터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지참 시 전 차종 50%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과·동아리 MT를 떠날 때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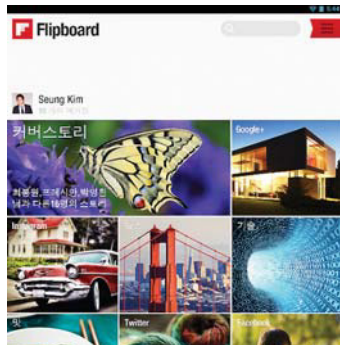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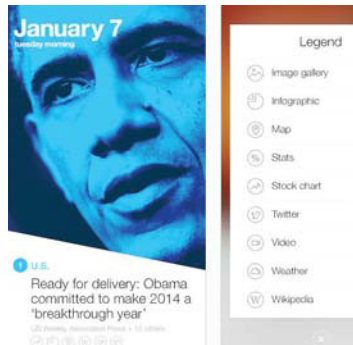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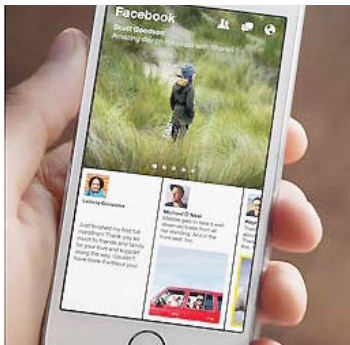
MT와 같이 여행 인원이 많은 경우 9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6명 이상 승차하면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해 빠르고 편안한 여행길이 보장된다. kt금호렌터카에서는 낯선 여행길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전 지점 무료 내비게이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ksgit@

알짜뉴스 골라주는 '큐레이션 앱' 시대

CNN 제휴 플립보드·페북 페이퍼 이어 카카오톡도 출시 준비

"수많은 중복·반복·어뷰징(조작) 기사 대신 정제된 뉴스만 골라 보고 싶다."

전 세계 IT 거물들이 정보 홍수로 고통받는 '검지족'들을 위해 큐레이션(추천)이라는 신무기를 들고 뉴스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나열된 뉴스보다 자체 편집진이 큐레이션 방식으로 선별한 뉴스가 스마트폰에 익숙한 검지족들의 눈길을 더욱 오래 붙잡아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왼쪽부터 큐레이션 뉴스앱 시장을 이끄는 플립보드·페이퍼·뉴스 다이제스트 앱의 서비스 화면.

9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잡지 플랫폼 1위 업계인 '플립보드'는 최근 미국 CNN 방송이 소유한 디지털 잡지 플랫폼 '자이트'를 6000만달러(약 643억원)에 인수했다. 특히 플립보드는 CNN과 기사는 물론 광고에 관해서도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 덕분에 모바일 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뉴스 앱으로 평가받고 있는 플립보드는 CNN이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를 '군량미'로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검지족의 취향을 분석해 추천하는 맞춤형 뉴스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플립보드가 IT 거물들의 잇따른 진출에 놀라 CNN이라는 강력한 '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최강 페이스북은 지난달 선보인 '페이퍼'로 뉴스 앱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페이퍼는 기존 온라인 뉴스와는 달리 자체 편집진이 10여개의 뉴스를 직접 선별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하 2단으로 구성돼 있는 화면은 지금까지 나온 모바일 뉴스 앱 중 신문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면이 바뀔 때도 종이를 넘기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을 당하는 야후도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4'에서 선보인 뉴스 앱 '뉴스 다이제스트'로 제기를 노리고 있다. 뉴스 다이제스트는 신문의 조·석간 시스템처럼 아침·저녁 하루 두 차례 요약된 뉴스를 보내주는 것이 특징이다. 알고리즘과 편집자들이 '그날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선택해 한 번에 최대 9개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큐레이션 방식의 뉴스 앱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도 올 상반기 안에 큐레이션 형태의 뉴스 앱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온라인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다"며 "온라인보다 검색이 불편하고 화면도 작기 때문에 단순하고 정제된 뉴스를 원하는 검지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 변경을 할 수 없다. 파손 및 분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만 허용된다. /손진영기자 son@

최악 제재 받은 이통 3사 웃는 이유

45일 영업정지 기간 수조원 마케팅비 절감
단말기 제조사·유통업계만 고스란히 피해

이통 3사가 13일부터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막상 영업정지를 당한 이통사는 웃고, 유통·제조업계는 울상을 짓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는 사물통신(M2M) 및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 과열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통사는 내심 속으론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투입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사업정지 기간이 총 68일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1조5000억~2조원의 마케팅비를 아끼면서 지금의 가입자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와 대기업 간 감정적 대결 구도로 인해 그 피해를 전국 30만 명의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공인이 그대로 떠안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전국 5만 개 매장에서 떠안는 피해액만 1조1000억~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물리적 행동과 집단 소송마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사 역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이통 3사를 합쳐 약 150만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기간에는 약 50만 대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의 경우 심각성은 더한 상황이다.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은 국내시장의 단말기 판매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됐다.

LG전자 역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국내 판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는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업정지 발표가 있기 전 팬택과 LG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에 영업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미래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T스토어 게임 4억건 거래

4년6개월 누적 기록

SK플래닛은 모바일 콘텐츠 마켓 'T스토어'가 게임 누적 다운로드 4억 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2009년 9월 오픈한 T스토어는 서비스 4년6개월여 만에 게임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만4000여 개의 게임이 등록됐다. 특히 T스토어 전체 거래액 중 게임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게임 거래액은 월평균 5%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역할수행게임(RPG) 장르는 올해 1월 거래액 전체 게임 비중에서 64%를 차지하며, 지난해 1월의 35% 비중 대비 크게 늘었다.

SK플래닛은 'T스토어'의 게임 누적 다운로드가 4억 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SK플래닛 제공

최근에는 '미검' '암드히어로즈' '레전드오브갓' 등 해외 개발사 게임과 국내 게임 '영웅의 군단' '데빌메이커' '헬로히어로' '우파루마운틴' 등의 하드·미드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 시장이 캐주얼 분야에서 역할수행게임(RPG) 기반의 하드·미드코어 게임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영기자

LG광화문빌딩 사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교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LG그룹 제공

LG그룹 광화문빌딩에 임직원 위한 어린이집

LG그룹은 9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LG광화문빌딩에 사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여성 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원한 LG광화문빌딩 어린이집은 303㎡(92평) 규모로 LG생활건강, 서브원 등 입주 계열사 직원의 만 1~4세 자녀 40여 명을 돌보게 된다. 특히 LG생활건강과 서브원은 여성 직원 비율이 각각 50%, 20% 이상으로 이번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여성 직원들의 육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곳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운영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닥재, 벽지 등에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3개의 보육실을 갖췄으며, 정식 보육교사 1인당 어린이 비율도 3.5명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고궁 등 역사 유적지가 많은 광화문의 특성을 살려 장구,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과 박물관, 유적지 견학 등 역사 관련 보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LG그룹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어린이집을 포함해 전국 사업장 28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IMC 총괄본부 신설 등 오리콤 조직개편 단행

두산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오리콤은 9일 다양한 광고·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합 진행할 수 있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총괄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4대 매체를 통한 광고를 ATL(Above The Line)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BTL(Below The Line)로 구분하던 방식과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회사의 전 조직을 IMC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섭 오리콤 사장은 "오리콤은 광고 프로세스, 업무 방식의 변화를 통해 통합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집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탁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생긴다

민관 협력 본격화…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안)'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 제안한 13대 미래 성장 동력(9대 전략 사업, 4대 기반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9대 전략 사업은 ▲5세대(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 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4대 기반 사업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다.

협의회는 13대 동력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3~4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각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해 5월까지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차관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술 개발, 해외 판로 개척 등을 공동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전진기지로서 구상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중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대구지역에서 개소하는 등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창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액셀러레이터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의는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제시한 내용은 벤처 창업 활성화,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미래 위험 및 기회 대비, 해외 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등 5개 분야 25개 실천 과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미래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제안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초콜릿 반값에 팔아요 롯데마트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전 점에서 유명 수입 브랜드 상품, 사탕, 초콜릿 등 선물용 상품을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선보이는 화이트데이 기획전을 14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9일 롯데마트 행당역점. /연합뉴스

알뜰폰 사용자 통신비 절반 '뚝'

월 평균 납부 1만6700원

서울 금천구에 사는 70대 A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다. 알뜰폰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A씨지만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데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도움이 될 듯싶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우체국 알뜰폰으로 갈아탄 A씨는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만원 이상 나오던 통신요금이 몇천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우체국 알뜰폰으로 바꾸면 통신요금을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가 최근 우체국 알뜰폰을 1개월 이상 사용한 고객 3만 명의 평균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월 납부액이 1만671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ARPU)인 3만4399원보다 49% 저렴하다. 우체국 알뜰폰 전체 가입자로 환산하면 월 12억원이 넘는다.

특히 기본요금이 저렴하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통신요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에서는 평균 1만3320원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우체국 알뜰폰으로 옮긴 후 평균 3280원을 납부해 75%를 절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더해 10일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판매한다. 하루 1~2분 정도 음성통화를 하는 장년층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층의 데이터요금제를 대폭 보강한 더 저렴한 요금제를 판매한다. 새로운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통신요금이 1만~2만원 절약된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또 우체국 알뜰폰 안내 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내게 맞는 요금제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제별로 기본료와 단가가 달라 고객이 직접 사용량을 입력하면 우체국 알뜰폰 18종의 요금제 중 저렴한 요금제 3종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김태균기자 ksgit@

"로봇 일상화 시기 곧 온다" 구글 회장 발언에 사업 주목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봇과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는 시기가 곧 온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글의 로봇 사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구글은 미국 국방부에 로봇을 공급하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포함해 최근 6개월 새 8개 로봇업체를 인수하면서 차세대 먹거리가 로봇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바 있다.

특히 구글 검색 이후 구글의 최대 히트작으로 평가받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앤디 루빈 수석부사장이 로봇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구글이 세상을 놀라게 할 로봇을 선보일 조짐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구글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로봇 공장'을 짓기 위해 애플의 하청업체로 유명한 폭스콘과 지난달 손잡았다.

구글이 로봇 비즈니스 상용화에 앞서 폭스콘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레이 커즈와일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의 언론 노출도 최근 잦아졌다. 그는 2년 전 인공지능 파트 연구개발을 위해 구글에 입사한 인물로 인터넷의 부상과 로봇 체스 챔피언 등장을 예견해 주목받았다.

그는 최근 "인간보다 더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이 곧 나올 것"이라고 또 한 번 장담했고 "2029년께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로봇도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첫 예언인 인터넷의 부상과 로봇 체스 챔피언의 등장은 현실이 됐다. /박성훈기자 zen@

왼쪽부터 BMW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뉴 4시리즈 그란 쿠페·혼다 시빅 타입R·포르쉐 919 하이브리드.

쿠페의 반란…도심 달릴 레이싱카

올해 제네바 모터쇼가 주목하는 4대 매력 카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는 수많은 콘셉트카와 새 차가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가운데 주요 모델을 살펴본다.

◆BMW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액티브 투어러는 2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로, 기능성과 스타일을 조화시킨 새로운 장르의 다목적 차다. 신형 3기통과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며, 라인업에 따라 134마력에서 228마력까지 다양한 엔진이 장착된다. 공간 활용성을 위해 BMW 최초로 앞바퀴 굴림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 특징. 차체 크기는 전장 4342mm, 전폭 1800mm, 전고 1555mm로 1시리즈보다 커졌으며, 트렁크 공간은 468ℓ로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510ℓ까지 확장할 수 있다.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쿠페와 컨버터블에 이어 BMW 뉴 4시리즈의 3번째 모델로 데뷔한 그란 쿠페는 2도어 쿠페의 매끄러운 외관과 4도어, 넓게 열리는 트렁크 등의 실용성이 조합됐다. 차체는 전장 4638mm, 전폭 1825mm, 휠베이스 2810mm로, 4시리즈 2도어 쿠페의 치수와 같다. 하지만 루프는 4시리즈 그란 쿠페가 12mm 더 높고, 112mm 더 길다. 4개의 도어를 갖춰 2도어 쿠페에 비해 편리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으며,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 프레임 없는 도어를 채택했다. 트렁크 용량은 2도어 버전보다 35ℓ 늘어난 480ℓ로 최대 1300ℓ까지 확장할 수 있다. 420d 그란 쿠페는 최고 출력 184마력을, 435i는 최고 출력 306마력의 힘을 발휘한다.

◆혼다 시빅 타입R

2013년 혼다는 WTCC(World Touring Car Championship)에 복귀하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빅 타입R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로운 시빅 타입R은 도로 주행을 위한 레이싱카로서 파워풀한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어 스포일러는 공기역학적인 형태와 디자인을 통해 최대한의 다운 포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수많은 시험 주행을 거치며 고안된 기술들이 적용됐다. 프런트 그릴은 엔진 냉각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넓어졌으며, 앞뒤 펜더 역시 20인치의 타이어에 걸맞게 넓어졌다.

시빅 타입R 콘셉트의 VTEC 터보 엔진은 4기통 2.0ℓ 직분사 시스템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며 280마력을 낸다. 시빅 타입R은 2015년 안에 유럽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혼다는 이번 2014 제네바 모터쇼에서 파워트레인 레이아웃이 변경된 새로운 NSX 모델과 차세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FCEV 콘셉트를 공개했다. NSX는 2015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FCEV는 유럽에서 2016년 상반기에 양산 모델이 출시된다.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

포르쉐 AG 회장 마티아스 뮐러는 919 하이브리드에 대해 "포르쉐가 지금까지 만든 차들 중 가장 빠르며 세계 내구 챔피언십 시리즈와 르망 24시에서 정해진 연료로 가장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는 2.0가솔린 터보 엔진과 모터의 조합으로 5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낸다. 르망 프로토 타입은 배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전기 발전기를 통해 배기가스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918 스파이더의 시스템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프런트 액슬의 발전기가 브레이크 구간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 전기 모터가 프런트 액슬을 가동시키면 4륜구동으로 변신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꾸역꾸역 9인승 "욕심 너무 부렸나봐"

■ 코란도 투리스모

성인 6명 타면 좋을 크기
비효율적 실내 구성 답답

▲한 줄 평가: 엔진 파워는 개선이 필요하다. 커튼 에어백의 부재도 아쉽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2013년 2월에 첫 출시된 코란도 투리스모는 사실상 로디우스의 페이스 리프트 차종이다. 로디우스가 처음 등장한 때가 2004년 5월이니 올해로 11년째 생산하는 셈이다. 비록 겉모습과 실내 일부분을 바꾼 모델이지만, 효과는 꽤 괜찮았다.

이번에 시승한 9인승 모델은 주춤한 인기를 되살리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승합차의 최고 속도가 110km로 제한되면서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9인승을 내놓은 것이다.

시트 구성은 11인승과 기본적으로 같고 2열 시트의 중앙 좌석을 없앤 게 차이점이다. 2개로 재편성된 2열 시트는 쿠션의 옆 부분이 두툼해지면서 착석감이 좋아졌다. 그러나 성인 아홉 명이 타기에는 실내가 넉넉지 않다. 3열 중앙 시트는 헤드레스트가 없어 성인이 타기 위험하고, 짐을 실을 경우 사실상 6명 정도가 적정한 승차 인원이다.

이러한 실내 구성은 차체 크기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3000mm인데 승차 인원을 늘리려다 보니 시트를 4열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시트 간 거리가 좁을 수밖에 없다. 반면, 토요타 시에나는 휠베이스가 3030mm인데 7인승이고 시트가 3열로 구성됐다. 게다가 시에나는 3열 시트를 전동 방식으로 접어서 바닥에 수납하는 기능까지 있어 넉넉한 짐 공간이 만들어진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4열을 앞으로만 접을 수 있어 화물 공간이 크지 않다.

엔진은 기존에 쓰던 155마력 2.0 디젤 타입을 그대로 얹었다. 1500rpm부터 발휘되는 최대 토크는 중저속에서 나름 괜찮은 가속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대 토크 구간인 2800rpm을 넘어서면 힘이 확연히 떨어지면서 가속이 느려진다. 시승 내내 혼자 탔기 때문에 이 차의 정원인 9명이 탔을 경우에는 가속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코란도 투리스모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오는 5월 등장할 기아차의 신형 카니발이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에는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의 상품성이 미흡해 보인다.

연구 아이템 80%는 버리라니…

뉴스룸에서
김 두 탁
<경제산업부 차장>

오는 14일이면 포스코 출범 이후 첫 엔지니어 출신 회장이 탄생한다. 바로 포스코의 8대 회장에 내정된 권오준(64) 포스코 사장(기술부문장)이 그 주인공이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유상부, 이구택, 정준양 회장에 이어 이번 권 내정자까지 계속 내부 인사로 회장 자리를 채우게 됐다. 사실 KT 황창규 회장처럼 스타급 인사가 외부에서 영입될 것이라는 등 그 동안 많은 인사들이 포스코 회장으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결국 회사 사정에 밝은 권 사장의 발탁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온 권 회장 내정자는 소위 말하는 '기술전문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기술 전문가가 수장이 됐으니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철강 부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한편에서는 그동안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계열사들의 방만경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경영 악화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를 살리기 위해선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개편 등 경영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과연 권 내정자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보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하 'RIST')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다. 사실 포스코 내에서도 RIST 원장이라 하면 적당히 임기를 채우고 나면 옷을 벗고 퇴직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출신인 권 회장 내정자가 사상 처음으로 포스코 회장으로 탄생하게 됐으니 벌써부터 열심히 하면 나도 회장까지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임직원들이 많아 졌다는 후문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기존에는 한직이라 여겨지던 연구원에서 어떤 성과를 내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간부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최근 권 회장 내정자가 RIST에서 "추진하고 있던 연구 아이템 중 80%는 없애고 20%만 가져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RIST 내부에서는 연구원 출신 회장이 연구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불만들에 대해 권 회장 내정자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당이 성공으로 가는 혁신과제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지금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신당 창당이 아닌가 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이 하나로 뭉쳐 '제3의 신당'을 만든다. 말이 창당이지 당대 당의 통합이나 마찬가지다. 신당 창당의 목표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 정치를 펴 오는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정치 행보나 안철수 의원이 선보인 새 정치의 실험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할지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정쟁으로 일관해 국력을 소모해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 또한 새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깃발을 들고 나온 안철수 의원은 아직도 새 정치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

이러한 두 개의 정당이 하나가 된다는 점에 우선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당 발표 후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출발하는 신당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신당이 제1야당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 수권 능력을 갖추자면 뼈를 깎는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른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수준은 노사 관계와 함께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때문에 정치 발전이 나라 발전의 핵심 역량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낡은 정치 청산은 야당부터 솔선해야 한다. 투쟁 일변도의 정치가 바로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 때 정치는 투쟁이 최선일 수 있다. 지금은 경쟁 시대다.

셋째,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에 가장 큰 가치를 둬야 한다. 이제는 낡은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났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미국조차 150년 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가장 중시하는 게티즈버그 연설을 거울로 삼을 정도다.

넷째,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처럼 당리당략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할 경우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킴은 물론 국론을 이리저리 쪼개 정치 혐오감만 키울 뿐이다. 대안 정치를 펴야 믿음이 간다.

다섯째, 계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지금 신당을 구성하는 세력 사이에는 태생적으로 갈등의 요소를 너무나 많이 지니고 있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력을 확보해야 희망이 있다.

포토프리즘 이한치한

꽃샘추위가 계속되던 지난 7일 오후 두꺼운 옷을 입고 서울 명동거리를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손에 큰 아이스크림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유난히 추웠던 이날 이 관광객들을 보며 이한치한(以寒治寒)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손진영기자 son@

위기의 팬택 재기 가능할까

기자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팬택의 경영 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장기화될 조짐만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5일 팬택의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팬택의 이번 워크아웃 추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에 이뤄진 선제적 워크아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9월 창업주인 박병엽 부회장이 경영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다. 또한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800여 명 무급휴직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였다.

이 같은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적자폭이 감소하는 등 희망을 봤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은 이번엔 이통사 영업정지라는 걸림돌로 인해 제2의 위기를 맞았다.

심지어 팬택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던 '베가 아이언2'의 출시일마저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5월로 미뤘다. 국내시장에 주력하며 경영 개선을 위해 선택지가 몇 가지 없던 팬택으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다.

벌써부터 최악의 경우 팬택의 매각설마저 나오고 있다. 다음달까지 채권단이 회계법인 실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팬택의 수익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첩첩산중' 위기의 팬택이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2년2개월 전의 위기 탈출 경험이 또다시 요구되고 있다.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8세기 중엽 이슬람제국의 규모는 가히 세계적이었다. 인도 근방에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영토는 로마가 붕괴된 이후 유럽의 역사적 운명을 좌우할 지경이었다.

7세기 이전에는 지중해 로마의 세계에서 미미한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아라비아였다. 아라비아는 비잔틴과 페르시아제국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와 같았고 두 제국이 격투를 벌이면서 힘이 약해지자 그 틈을 파고 종교와 군사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슬람의 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문명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잔틴과 페르시아 문명의 수준은 아라비아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슬람은 보통의 정복자들이 했던 것처럼 문화를 파괴하고 약탈한 것이 아니라 고등 문명의 영양분을 자신의 것으로 최대한 섭취하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이슬람은 지적 품격을 갖춘 문명이 되어갔던 것이다.

이러면서 아랍어는 국제어가 되었다. 천일야화 '아라비안나이트'를 봐도 중앙아시아 쪽에 가까운 사마르칸트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문학의 위치를 갖게 된 것은 아랍어 덕분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서적은 당시 기독교의 일파였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 거의 대부분 아랍어로 번역됐다. 르네상스의 자양분이 여기서 마련된다. 중국과 인도로부터는 특히 십진법, 0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된 대수학을 만들어 냈다. 12세기 중세 유럽은 이에 비해 낙후한 지적 수준을 면치 못한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그러나 어디 그런 고민이 이슬람에만 있는가? 그런데 이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문명의 자산이 풍부하다. 그리고 그 지혜로 오늘의 세계를 진중하게 상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문명에 무식하거나 멸시한다. 그건 우리의 무지일 뿐이다.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 같은 세계적 고전이자 명저가 오랫동안 품절인 채로 지식사회 안에서도 읽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아사비야'라는 말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의 근원에 대한 그의 성찰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주제다. 그럼에도 이슬람의 정신세계와 문명에 대한 배움은 너무도 방치돼 있다.

이 나라 지식 지도는 다시 써져야 하지 않을까? 서양의 이론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습관이 너무도 깊다.

진화한 허리·목 디스크 치료 '고주파 10분'이면 끝!

일시적 통증감소 시술과 차별화…특수 내시경 이용 재발 방지 중점

유명 연예인 가수 K씨는 1개월 전부터 부쩍 심해진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척추 전문병원 및 대학병원을 찾았고 이곳에서 추간판 탈출증 말기를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다른 병원에서 가격이 비싼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신경 성형술, 추나요법 및 침치료 등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 역시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할 뿐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져 결국 강남초이스병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K씨를 진단하고 국소마취하에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K씨의 통증은 곧바로 호전됐으며 K씨는 치료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또 K씨 시술 후에는 K씨와 함께 '런닝맨'에 출연 중인 유명 배우 L씨와 가수 G씨도 비슷한 증상으로 강암초이스병원을 찾았으며 이들도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왕성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런닝맨'에 출연 중인 가수 김종국(오른쪽)과 강남초이스병원 조성태 원장.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수술의 공포 털어낸 치료법

이처럼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시술이다.

또 강남초이스병원은 수술이 두렵거나 고혈압·당뇨·골다공증 및 노인 환자를 위해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이 시술은 1.5㎜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직접 병변을 확인하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레이저를 이용해 염증을 제거하고 돌출된 디스크를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특히 부분 마취로 진행돼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어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의 치료도 가능하다.

◆연예인·스포츠 스타도 찾는 병원

이와 함께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주로 찾아 유명해진 강남초이스병원은 시술 이후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즉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시킨 것이다.

또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약화된 관절과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및 홍대입구역에서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 (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여의도점 02)786-2200·홍대점 02)336-2200 /황재용기자

런닝머신 넋 놓고 타다간 발목 삐끗

실내 운동시 주의사항
사이클 동작 무리하면
장경인대 염증 위험도

연이은 미세먼지와 봄철 불청객 황사의 공습이 기다리고 있는 최근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내 운동은 방심하면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지 걷기'라도 방심하면 부상

걷기와 달리기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유산소운동으로 실내에서는 러닝머신을 활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위를 달릴 때와 달리 러닝머신에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으며 러닝머신을 통해서도 무릎과 발목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평지와 달리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벨트 위를 달려야 하는 러닝머신 운동은 방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발목을 삐끗하고 접질리는 발목 염좌를 조심해야 하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자전거 운동은 날씨 좋은 봄철에 선호되는 운동이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 밖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면 집 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하늘자전거 스트레칭이나 실내 사이클로 자전거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늘자전거 스트레칭은 바닥에 누워 손을 허리 부근에 가져다 댄 후 자전거 페달을 밟듯 허공을 향해 발을 구르는 동작으로 30초 간격으로 3~5회가량 실시하면 무릎과 허벅지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 또 실내 사이클의 경우에는 야외에서 즐기는 자전거 운동과 달리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경사로나 돌부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다치거나 사고가 나지 않아 오히려 안전하다.

하지만 무리한 욕심을 부려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면 골반에서 허벅지 바깥쪽을 타고 무릎 쪽으로 내려오는 긴 근육과 인대를 지칭하는 장경인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온라인쇼핑 '건강 마케팅' 붐

미세먼지 청소용품 할인 등

꽃샘추위와 중국발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 큰 일교차 등 최근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는 '건강'이 됐다.

모바일 쇼핑·TV 홈쇼핑·오픈 마켓 업체들은 앞다퉈 봄철 유해 환경으로부터 예민해진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 비타민제부터 마스크, 핸드워시 등의 각종 건강 관련 용품을 증정·할인 판매하는 '건강' 마케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온라인 마켓의 경우 황사철 대비 기획전이 이어지고 있다. 옥션은 미세먼지와 함께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한 홈스타 착붙는 락스 스프레이900㎖×2개(7900원·47% 할인), 극세사 청소장갑(3900원, 43% 할인) 등 각종 청소용품 및 세정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 쇼핑 앱 '티드'는 독일 발포비타민 브랜드 '비타하임'의 입점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이벤트를 벌인다. 신규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비타하임 제품(10정)을 증정하며 비타하임 제품 10개 묶음을 약 40% 할인된 1만7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제공한다.

GS홈쇼핑의 경우 4월 1일까지 3월 중 방송 편성된 기획 상품(5만원 이상)을 3회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봄철 건강관리 5종 세트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prms@

화이트데이 선물 1위 '속옷'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주는 남성이나 받는 여성 모두 선물로 '속옷'을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속옷 브랜드 비비안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응답자 중 60%가 올해 화이트데이 선물로 속옷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섹시한 스타일의 호피(레오파드) 란제리가 40%로 1위를 차지했고 귀여운 핑크 란제리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남성들이 선물로 고려한 스타일 1위인 섹시한 속옷은 여성들도 응답자의 44%가 원한다고 답했다.

휘닉스파크 골프시즌 개막

휘닉스파크 골프클럽이 지난 7일부터 2014시즌 골프클럽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해 큰 화제를 모았던 휘닉스파크 골프클럽은 파 72, 총 연장 6336m(6932야드)에 7개의 호수와 도전적인 코스 세팅으로 7회 연속 대한민국 베스트 10대 코스에 선정된 골프클럽이다. 3월에는 스키장도 함께 운영해 스키 슬로프 위를 질주하는 스키어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낮에는 골프를, 밤에는 야간 스키를 즐기는 일정도 가능하다.

한편 휘닉스파크 스키장은 기후 상황에 따라 3월 마지막 주말까지 슬로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약 문의: 휘닉스파크 골프클럽 1577-0755

목우촌-린코푸드 업무협력

농협 목우촌이 덴마크 기업 린코푸드시스템과 지난 6일 '제4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목우촌은 이날 체결한 MOU를 통해 덴마크의 선진 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쟁력 있는 통합 경영체(Packer)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도계설비, 생산설비 등 축산 공정 전반에 걸친 덴마크의 기술에 대해서도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예정이다.

성병덕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닭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 설비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선진 기술 도입으로 대한민국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몬스터 '늑장몬스터' 눈총

'짝퉁 어그' 1년 지나 환불
3년전 발생 회원정보 유출
최근에야 발표 '축소 의혹'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가품 논란을 빚은 어그부츠에 대한 전액 환불 논란에 이어 이번엔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늦장 대응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세가 급상승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및 오픈 마켓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티몬은 지난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4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원 113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경찰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고객 피해 최소화 및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이름·아이디·성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e메일주소·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패스워드는 해시값(hash value)으로 일방향 암호화(one-way encryption) 처리돼 있어 풀어내거나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티몬은 2011년 4월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3년 동안이나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게다가 이 회사는 경찰로부터 지난 5일 유출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틀 뒤인 7일 오후 늦게야 언론에 사실을 알려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해커는 현재 구속돼 구체적인 해킹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들께 실망과 불편을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대표의 말조차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티몬은 '짝퉁 어그' 논란을 일으킨 제품 9000여 개를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판매된 것으로 지난달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환불 조치였다. 이 역시 티몬 측의 선제 조치라기보다는 수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가중시켰다.

해당 제품을 수입해 티몬에 판매한 구매 대행업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쉐라톤인천 '러브 홀릭' 체크인

화이트데이 패키지 2종
야경 만찬·특별공연 등

쉐라톤 인천 호텔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2종류의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러브 홀릭 패키지I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네(BENE)에서 송도 센트럴파크의 야경과 함께하는 5가지 코스의 저녁 만찬과 와인·디럭스 시티 룸 1박을 제공한다.

러브 홀릭 패키지II에는 밤하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쉐라톤 클럽 시티뷰 1박과 호텔 로비 바 비플랫(Bb)에서 즐기는 로맨틱 나잇@ 비플랫 세트가 준비돼 있다.

특히 로맨틱 나잇@ 비플랫

세트는 기타와 첼로로 구성된 특별 공연과 리알토 모스카토 스파클링 와인 1병을 제공한다. 이 공연은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저녁 9시부터 9시40분, 2부는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된다.

/황재용기자

꽃샘바람 막아줄 점퍼 입혀요

새학기 자녀 패션 이렇게

신학기를 준비하는 엄마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자녀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첫날인 만큼 자녀의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아이의 의상을 고를 때에는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활동량을 고려한 기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기능성과 디자인 요소를 두루 갖춘 아동 아웃도어 의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3월에는 꽃샘추위나 봄바람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줄 바람막이 점퍼 하나는 필요하다. 키즈 아웃도어 브랜드 섀르반의 배색 윈드브레이커는 기능성 소재를 적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미국 듀폰사에서 개발한 서플렉스 소재를 사용해서 방수·방풍 및 발수 기능이 우수하다. 색상은 원색에서 한 톤 내린 딥핑크·그린·오렌지를 사용했으며 어깨 부분에서 후드 부분까지 이어지는 모노톤의 포인트는 세련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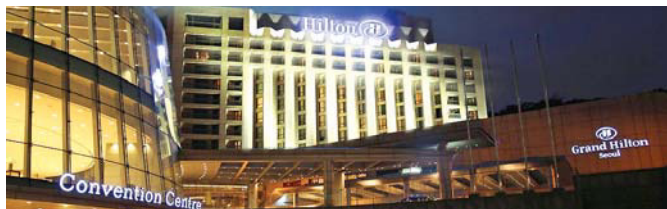
이너는 과감한 프린트와 패턴이 있는 것을 선택해 아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좋다. 부엉이·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선택하면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 풍으로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된다.

/정혜인기자

캠퍼스 이벤트 응모하면 푸짐한 선물

메트로 홈페이지 응모하세요

세계 최초,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신문은 2014년 새 학기를 맞아 산뜻하고 신나는 대학 생활을 기원하면서 청춘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을 걸고 캠퍼스 이벤트를 펼칩니다. 응모하신 분께는 푸짐한 대박 선물을 한아름 드립니다.

오는 3월 11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올해 캠퍼스 생활 중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원하는 것 3가지'를 적어 보내시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두 127명께 아래 선물을 드립니다.

메트로신문은 아파트단지 내 배포 등을 통해 기존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한편, 더욱 질 높은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더욱 많은 캠퍼스 정보를 갖고 대학생 여러분께 찾아가는 메트로신문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3월 12일 개별 통보합니다.

신나는 대학 생활! 메트로가 응원합니다.

<선물>

▲그랜드 힐튼 서울 숙박+식사권(3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1명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숙박권(8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1명 ▲뮤지컬 '삼총사' A석 초대교환권 20명(각 2매) ▲스무디킹 3만원 상품권 5명 ▲던킨도너츠 모바일 상품권 100명

대한민국 노처녀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막돼먹은 영애씨 13
tvN 다큐드라마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 / 3월 27일 첫방송

과일 퐁당 '맥주 칵테일' 분위기도 퐁당

저도주·홈메이드 열풍 버무린 술 만들어볼까

최근 저도주 선호 현상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부어라, 마셔라'하는 과도한 음주 문화가 사라지고, 적당하게 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주류업계는 소주의 도수를 낮춰 출시하거나, 과일 향이 들어간 저도주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또 술을 가볍게 즐기는 문화가 전파되면서 소비자들이 '나만의 술'을 직접 개발해 즐기는 '홈메이드 칵테일' 바람도 불고 있다.

흔히 칵테일을 위스키·진·테킬라 등 고도주를 베이스로 만든 것으로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일부 마니아들 사이에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도수가 낮은 맥주를 이용해 이색적인 칵테일을 만들어 즐기고 있다.

◆파티 흥 돋우는 '크루저토닉'

와인크루저와 토닉워터를 믹스해 만드는 칵테일인 '크루저토닉'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파티 칵테일로 화려한 컬러와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얼음을 가득 채운 볼에 와인크루저·토닉워터·보드카를 주량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섞은 후 각자의 잔에 따라 마시면 된다.

소주를 활용해도 무방하며 기호에 따라 레몬·자몽과 같은 과일을 짜서 넣으면 상큼함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다.

◆마가리타와 코로나의 하모니

'코로나리타'는 테킬라를 응용해 만든 칵테일 마가리타에 맥주 코로나를 더한 이색 칵테일이다. 커다란 마가리타 잔에 앙증맞고 귀여운 코로나 미니 병을 그대로 꽂아 넣고 빨대로 마시다 보면 코로나가 천천히 흘러나와 색다른 맛을 낸다.

투명한 병과 밝고 옅은 노란색 맥주가 시원함과 청량감을 더해 '눈으로 마시는 맥주'라는 칭호를 얻기도 한 코로나는 라임이나 레몬 조각을 병 입구에 끼워 마시는 독특한 음용법으로도 유명하다.

◆'카스 애플' 상쾌한 8대2 비율

'카스 애플'은 카스 후레쉬를 글라스 잔에 붓고 신선한 사과 주스를 넣으면 완성되는 상큼한 맛의 칵테일이다. 기호에 따라 맥주와 사과 주스의 비율을 조절해 먹을 수 있어 알코올에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스 후레쉬와 사과 주스의 비율을 8대2로 맞추면 카스의 청량하고 톡 쏘는 맛과 사과 주스의 새콤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카스 후레쉬와 토마토 주스를 1대1 비율로 넣는 '카스아이', 카스 후레쉬와 커피를 8대2 비율로 믹스한 '커피 카스' 등 카스 후레쉬를 새롭게 마시는 다양한 방법이 애주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호가든·기네스 섞은 '더티호'

맥주 두 가지를 섞어 만드는 칵테일인 '더티호'는 달달한 호가든 맥주에 쌉싸래한 흑맥주 기네스만 있으면 된다. 더티호는 호가든을 맥주잔에 절반 정도 따른 후 기네스를 숟가락 뒷면을 이용해 간을 맞추듯 조금씩 부어주면 완성된다.

더티호는 아래쪽은 호가든, 위쪽은 기네스로 층이 나뉘게 되는데 한입에 쭉 들이켜야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호가든의 달달한 맛과 기네스의 쌉싸래한 맛이 의외의 궁합을 자랑한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오뚜기 식초 안 쓰이는 곳이 없네

뛰어난 발효기술 바탕 시장 가치 높이기 앞장

최근 식초가 피로 해소, 혈압 강하 등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식초를 활용한 사례가 요리 이외에 건강과 미용, 일상생활 등 폭넓게 관심을 받으면서 식초의 효능이 재조명받고 있다.

식초는 피부 미용 개선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먹는 양조식초는 피부를 알칼리성에서 약산성으로 중화시키고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세안 시 마무리 단계에 식초 3방울 정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진다. 머리를 헹굴 때도 소량의 식초를 넣으면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비듬 예방에 좋다.

식초는 손에 밴 마늘 냄새, 생선 비린내 등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식초를 탄 물에 손을 씻으면 냄새가 깨끗이 사라지며 주방 도마에 밴 음식 냄새도 식초를 사용하면 냄새가 제거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식초는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 벌레에 물려 가렵거나 아플 때 식초를 발라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또한 딸꾹질이나 호흡 곤란, 식도에 음식이 걸렸을 경우에도 식초를 물에 타서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뚜기는 지난 1993년 국내 최초로 2단계 고산도 식초 발효공법에 의한 2배 식초를 개발해 출시했다. 이어 98년에는 국내 최초 3배 식초를 출시하면서 뛰어난 발효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먹거리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웰빙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 2011년에는 100% 국산 매실을 사용해 맛과 향이 진한 매실식초를 선보이는 등 저산도 식초를 선보이며 용도와 소재를 다양화하고 있다.

올해 전체 식초 시장 규모는 1400억원으로 조미 식초는 이 중 35% 선인 약 50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정영일기자

'따뜻한 말 한마디' 끝낸 지진희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속 불륜남부터 영화 '러브픽션' 하정우의 지질한 백수 형까지.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늘 반듯한 어른 남자의 이미지가 있는 배우 지진희(43). 그는 대중의 그런 시선에 오히려 "고맙다"며 "그렇게 고정된 이미지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반듯한 이미지 단점이자 장점"

◆ 다른 배역 맡으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

그는 자신의 반듯한 이미지에 대해 "신뢰감을 주는 외모라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어릴 때 공놀이를 하다 공이 이웃집 담벼락으로 넘어갔을 때 형들이 찾으러 가면 혼났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아주머니가 별 말 없이 다시 공을 돌려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외모였던 것 같아요."

지진희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유재학은 이해는 가지만 닮고 싶은 캐릭터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유재학에게선 진짜 지진희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클라이밍과 레고 조립 등은 실제 그의 취미로 촬영 전 하명희 작가와 충분히 상의해 넣은 것이다.

그는 "단언컨대 클라이밍은 훌륭한 스포츠"라며 "클라이밍을 하면서도 연기와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다"고 말했다. 클라이밍은 수많은 추락과 실패를 반복한 후 한 코스를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인데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 코스로 넘어가면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기도 마찬가지"라며 "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다른 역할을 맡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 나를 알아야 상대 알 수 있다는 교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륜을 미화했다는 비판에 지진희는 "유재학과 송미경(김지수)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면서 상대를 자기 멋대로 정의 내렸다. 서로의 좋은 면만 보려 하고 나쁜 점이 보이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헤어져버리는 것이다"며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다 결혼 후 가까이에서 지내면 보기 싫은 것도 본다.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한 번 아내와 며칠 동안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렇게 아내가 다 터놓고 나더니 '고맙다'고 말하더라. 부부끼리 고맙다는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 40대 매력은 여유…나이 먹는 것 좋아

그는 "연기에도 유행이란 게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 얼마 전 작품인데도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건 개봉한 지 10년이 지나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10년을 입어도 마치 처음 입는 옷 같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남들보다 부족했다고 판단했던 그는 이미 연기 생활 1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배우들을 절대 못 쫓아갈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연기 생활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나이 먹는 게 좋다"며 "40~50대 남자들은 참 섹시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역시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것들 중 40대인 유재학 캐릭터를 가장 좋아했다. '이제야 오빠의 섹시한 매력이 조금 보였다'며 좋아하더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는 모습에선 중년 남자의 중후한 매력과 소년 같은 순수함이 공존했다.

지진희는 40대의 매력을 "여유"라고 정의했다. 그는 "40대만이 가지고 있는 섹시함은 경험과 연륜에서 나온다"며 "물질적인 걸 넘어서 정신적인 여유,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외면은 물론 내면까지도 가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서른 살 나이에 데뷔한 그는 연기로 먹고살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답게 장점을 하나씩 찾았다고 한다.

그는 "나는 당시 나이만 많고 돈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미 바닥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엄청난 장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만의 장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불륜남' 유재학 캐릭터 이해… 아내도 섹시 매력 봤다네요
클라이밍·레고 조립 취미… 늘 새로운 배우가 되고 싶다

사진/황정아(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이 두 남자 뜨면 중국이 들썩인다

'별그대' 김수현 인기 업고 亞투어… '상속자들' 이민호 웨이보 회원 100일만에 2배

김수현

이민호

국내 인기 드라마가 꽉 닫힌 일본 시장을 대신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호·박신혜 주연의 SBS '상속자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가로 중국에 수출된 데 이어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중국 13억 인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진 두 드라마는 녹록지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친 많은 젊은 여성들의 환상을 채워줌으로써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자 주인공에 대한 환상을 이끌며 2003년 일본 열도를 뒤흔든 '욘사마' 열풍을 보는 듯하다.

◆ '상속자들' 이민호·김우빈

'상속자들'의 주인공 이민호는 중국에서 연이어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민호는 8일 오후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 회원 수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민호는 지난해 11월 24일 1000만 명을 넘어선 후 불과 100일 만에 두 배의 기록을 세웠다. 이민호의 페이스북 회원도 8일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민호는 지난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스타덤에 오른 후 지난해 드라마 '상속자들'로 중국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김우빈의 아시아투어도 경이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홍콩을 시작으로 '김우빈, 첫 번째 팬 미팅 인 아시아'에 돌입한 김우빈이 연이은 공연 추가와 티켓 매진을 이어가며 '아시아 대세남'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오픈한 1500석 티켓이 5분 만에 매진된 대만 팬미팅은 팬들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인해 1회 공연이 추가됐고, 이 공연 티켓 역시 5분 만에 완판됐다.

◆ '별그대' 중국 넘어 전 세계 관심

'별그대' 열풍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8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며 한국의 인기 드라마 '별그대' 바람을 집중 조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기사에서 장쑤성에 사는 한 임산부는 매일 밤 맥주와 치킨을 먹다가 유산할 뻔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별그대' 온라인 조회 수가 25억 회에 달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여세를 몰아 김수현은 오는 16일 한국을 시작으로 대만과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태국 방콕, 중국 베이징 등을 거쳐 일본에서 아시아투어를 개최한다. 이는 2004년 한류 열풍의 시작이었던 배용준의 '겨울연가' 투어와 닮았다. 당시 배용준은 아시아 각국에서 엄청난 팬들의 환호를 받은 뒤 일본에 도착해 '욘사마'로 등극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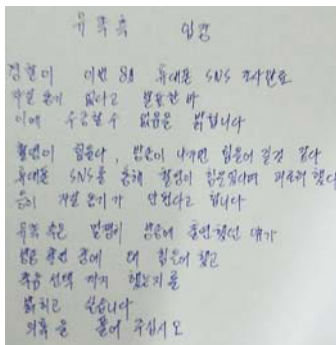
"'짝' 촬영 중 죽음 의혹 풀고 싶어"

딸 사망 부모 진상조사 요구

SBS '짝'이 출연자 자살사건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계속되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숨진 '짝' 출연자의 부모가 "딸이 방송 출연 중에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의혹을 풀고 싶다"고 밝혀 진상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한 전모(29)씨의 어머니 이모(53)씨는 9일 전씨가 '촬영이 힘들다. 방송이 나가면 힘들어질 것 같다'고 괴로워했다며 "경찰이 8일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조사가 완료돼 자살 동기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작진이 딸을 비련의 여인으로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짝' 제작진과 SBS로부터 공식적인 사과 입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SBS '짝' 촬영 중 사망한 전모씨의 유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글. /연합뉴스

이 가운데 경찰도 방송국 측에 촬영분 전반에 대해 제출을 요청, 분석 작업을 벌여 강압적 촬영에 대한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해당 출연자는 지난 5일 오전 2시15분께 '짝' 촬영 장소인 서귀포 하예동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어 줄에 목을 맨 숨진 채 발견됐다. /전효진기자

배민아·장한나 톱8 진출

'K팝스타3' 경연 결과

차세대 K팝 스타 8명이 확정됐다.

9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3'(이하 'K팝스타 3')에서 진행된 톱 10 경연 결과 한희준·배민아·장한나(오른쪽 사진)가 B팀 승자로 결정 났다. 이들은 앞서 톱 8에 오른 A팀의 권진아·짜리몽땅·알맹과 생방송 무대를 꾸릴 자격을 우선적으로 지니게 됐다.

방송에서 한희준은 김건모의 '미련'을 부르며 감성적인 목소리로 현장을 적셨다. 호평이 예상됐지만 심사위원인 양현석은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평가했다.

'K팝스타 3' 여성 보컬의 힘을 보여준 배민아와 장한나도 톱 8에 이름을 올렸다. 배민아는 애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를 맑은 목소리로 소화했고, 양현석은 "박정현의 뒤를 잇는 R&B 여제가 될 것이다"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한나는 타샤니의 '경고'를 불러 유희열로부터 "타고난 가수"라는 극찬을 들었다.

이날 방송에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지만 지난 2일 탈락 후보가 된 샘 김(왼쪽)과 버나드 박이 시청자 심사위원의 지지를 얻어 B조의 남영주·썸띵을 제치고 톱 8 진출권을 따냈다.16일 방송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2PM 준케이 日 솔로데뷔

그룹 2PM의 멤버 준케이(사진)가 일본에서 홀로서기에 도전한다.

그는 5월 14일 자작곡이 담긴 첫 번째 솔로 앨범 '러브 앤 헤이트'를 발표한다. 준케이는 6일 2PM의 일본 아레나투어 오사카 공연에서 이 같은 사실과 투어 계획을 밝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 꾸준히 자작곡을 발표해온 그는 일본 아레나투어와 아시아투어 솔로 무대에서 색다른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여 솔로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준케이는 앨범 발매와 함께 오사카(5월 8~9일)를 시작으로 후쿠오카(13일), 도쿄(16일·27~28일), 나고야(19~20일), 삿포로(22일)에서 솔로투어 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전효진기자

사이먼디, 박재범과 '한지붕' 쓴다

힙합 레이블 AOMG와 계약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의 사이먼디(사진)가 박재범이 소속된 힙합 레이블 AOMG와 계약했다.

사이먼디는 박재범이 지난해 10월 설립한 이 레이블의 공동 대표를 맡아 소속 가수들을 함께 이끈다. 그는 데뷔 후 6년간 몸담은 아메바컬쳐와 1월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왔다.

AOMG는 '어보브 오드네리 뮤직 그룹'의 약자로 평범한 음악을 하지 않는 집단을 뜻한다. 이곳에는 그레이·로꼬·전군·어글리덕·DJ 펌킨·DJ 웨건·박재범의 비보이 크루인 AOM 등의 프로듀서와 가수들이 소속돼 있다.

사이먼디와 박재범은 향후 한국의 힙합을 해외에 알리고 AOMG를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 패션 등 힙합 문화를 아우르는 전문 레이블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suno@

2014.3.11 1차 TICKET OPEN

2014.4.15~6.29 BBC아트센터 | BBC홀

김봉환 서영주 김법래 엄기준 에녹 박성환 손준호 Key 박형식 주아 김아선 가희 오소연 외

Book by IVAN MENCHELL, Lyrics by DON BLACK, Music by FRANK WILDHORN

프로듀서 김병석,김선미 | 연출 왕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안무 홍유선 | 무대디자인 Tobin Ost , 서숙진 | 조명디자인 Michael Gilliam, 민경수 | 음향디자인 권도경 | 분장디자인 김유선 | 의상디자인 김지연 | 영상디자인 Aaron Rhyne, 박 준 | 소품디자인 임희정

투자 하나투어 제작 CJ E&M (주)엠뮤지컬아트 협찬 LOUN.G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하나Ticket 1566-6668 CJ E&M TICKET 1588-068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J E&M TICKET 1588-0688

bonnieandclyde.co.kr

정형돈 짬뽕+짜장 '오빠게티' 등장

'짜파구리' 아성 넘을지 관심

정형돈(사진)이 MBC '무한도전'에서 선보인 '오빠게티'가 새로운 '예능 라면'으로 탄생할 조짐을 보인다.

정형돈은 8일 '무한도전' 자메이카 특집 마지막 편에서 하하·스컬·노홍철과 함께 자메이카 인기 프로그램 '스마일 자메이카'에 출연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정형돈과 멤버들은 방송 녹화를 끝내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닷새째 한국 음식을 못 먹었다"며 "맵고 자극적인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호 PD가 선뜻 스태프들이 가져온 라면들을 건넸고, 정형돈은 몇 개의 라면을 섞어 만든 오빠게티를 선보였다.

정형돈의 오빠게티는 오징어 짬뽕라면과 짜파게티의 건더기, 라면수프를 4분의 3 정도 넣어 끓인 뒤 면이 익으면 물을 덜어내고 짜장 소스를 센 불에서 비비면 완성된다.

오빠게티를 본 시청자들은 김성주가 '일밤-아빠! 어디가?'에서 선보인 짜파구리의 뒤를 이을 화제의 라면으로 꼽으며 "오빠게티라니 듣기만 해도 맛있겠다" "역시 정형돈은 먹을 줄 아는 사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지민기자 langkim@

'우결' 가상커플 딜레마

프로그램 포맷 변경 쉽지않고 스타 캐스팅땐 팬 환영 못 받아… 시청자 불만 증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 4' 출연진 우영·박세영, 정유미·정준영, 이소연·윤한(왼쪽부터). /MBC 제공

MBC '우리 결혼했어요 4'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는 지난주 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 6.4%를 기록하며 같은 시간대 방송되는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10.9%)에 크게 뒤처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8일 방송 시청률은 5.5%로 더욱 하락했다.

2008년 첫 방송된 후 올해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한 '우결'에는 현재 윤한·이소연, 정준영·정유미, 우영·박세영이 가상 부부로 등장하고 있다.

가상 부부들은 알콩달콩한 신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방송의 재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출연진이 모두 부부로 등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반의 내용은 모두 비슷하며 이마저도 지난 6년간 반복됐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평가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가상 부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 프로그램 포맷 자체의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시청률을 다시 올리기 위해 쓰이는 방법은 인기 높은 연예인을 캐스팅해 시청층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정작 팬들은 환영하지 않는 눈치다. '우결'에 등장한 연예인들에게 종종 핑크빛 염문설이 따라붙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우결' 출연 소식과 하차 소식에 울고 웃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청자들이 '우결' 속 모습을 실제와 혼동하거나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진짜로 사귀어라"고 종용했던 해프닝이 벌어진 적도 있어 이미 팬들 사이에서 '우결'은 악명 높은 프로그램이 된 지 오래다.

'우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착각에 몇몇 네티즌들은 "'우결'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전원일기' 최불암·김혜자도 아닌데 왜 착각을 하느냐" "이러다 '우결'도 '전원일기'처럼 20년 방송하겠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이문세 콘서트 연장… 5월 잠실서 마침표

가수 이문세(사진)가 1년 만에 잠실 벌을 다시 달군다.

그는 5월 17일 잠실종합운동장 내 야외공연장에서 전국투어 '대한민국 이문세-생 큐' 서울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무붕 측은 "전국투어 요청이 쇄도해 5월까지 투어 연장을 결정했다"며 "1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이문세 콘서트가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문세는 가수 데뷔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6월 1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콘서트 '대한민국 이문세'를 열어 5만 관객을 집결시켰다. 서울에 이어 강릉·인천·창원·전주·대전·수원·울산·의정부·안동·광주·부산·고양·대구·포항·부천·순천에서도 공연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문세는 2011~2012년 '이문세 붉은노을' 콘서트에서도 평균 1500석 규모의 단일 공연으로 100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는 15일 진주 공연에 이어 제주·안양·경산·청주·원주를 거쳐 서울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유순호기자 suno@

에일리·효린 '렛 잇 고' 열창… "황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 '렛 잇 고' 열풍이 가요 무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수 에일리(사진 왼쪽)와 그룹 씨스타 효린(오른쪽)은 지난 8일 방송된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이하 음악중심)에서 '겨울왕국'의 OST '렛 잇 고'를 열창해 남심을 흔들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효린과 에일리는 '겨울왕국' 열풍을 일으켰던 OST '렛 잇 고'를 부르며 풍부한 감성을 선보였다.

각각 한국의 비욘세로 불리며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아온 효린과 에일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해 음악 팬들의 귀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여러 국내 가수들이 '렛 잇 고'를 부르며 가창력을 검증받아온 가운데 손승연은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발표한 전 세계 인기 '렛 잇 고' 영상 순위에서 10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임형주 '파이널리' DVD출시

팝페라 테너 임형주(사진)의 첫 단편영화 감독 데뷔작 '파이널리'가 10일 DVD 한정판으로 발매된다.

'파이널리'는 임형주가 최근 8년 만에 발매한 자신의 정규 5집 '파이널리'와 동명의 타이틀로 제작한 뮤직 무비 형식의 단편영화다. 임형주가 연출을 맡았고,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제작 단계부터 직접 관여했다.

이번 영화는 5집 타이틀곡인 '할 수가 없어'와 '외사랑'의 가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허염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송재희와 일본의 인기 그룹 와즈 업의 멤버인 교헤이가 남자 주인공을, '응답하라 1994'에서 나정(고아라)의 영화 동아리 선배 역으로 출연한 서은채가 여자 주인공을 맡았다.

'파이널리'는 DVD 발매에 앞서 9일 단 하루 극장에서 특별 상영을 했으며 일본·중국·대만·홍콩·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황정민·유아인 '베테랑' 주연

류승완 감독의 차기작 '베테랑'에 황정민(사진)과 유아인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황정민과 유아인은 각각 광역수사대의 원칙주의 형사 서도철 역과 재벌 3세 조태오 역을 맡아 연기 대결을 펼친다. 황정민은 '부당거래' 이후 3년 만에 류 감독의 영화에 형사 역할로 다시 출연하게 됐다.

이 밖에 유해진과 오달수를 비롯해 정만식, 모델 장윤주, 배우 유인영 등이 출연한다.

영화는 이달 중 촬영에 들어간다. /탁진현기자 tak0427@

마법 같은 5색 매력… 반했어요, 샤이니

샤이니가 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월드투어 '샤이니 월드 3'에서 '데스티네이션'을 부르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관객을 압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무대로 투어 서막 알린 남성 아이돌 샤이니·B.A.P

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와 B.A.P가 2014년 글로벌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 샤이니는 데뷔 후 첫 중남미 투어를 진행하며, B.A.P는 4개 대륙 20회에 걸친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8~9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샤이니)과 핸드볼경기장(B.A.P)에서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 공연을 개최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 샤이니 첫 중남미 투어

샤이니는 8~9일 공연을 통해 2만여 명의 한국 팬들과 만났다. 9일 세 번째 단독 콘서트 '샤이니 콘서트 샤이니 월드 3 인 서울' 공연을 앞두고 만난 샤이니는 "월드투어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샤이니 콘서트를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민호는 "화려한 퍼포먼스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 관객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다"고 전했다. 이어 종현은 "이번 콘서트는 관객분들과 팝콘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톡톡 튀는 공연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뛰면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샤이니는 장막이 걷히고 팬들의 환호 속에서 정규 3집 수록곡 '스포일러' '이블' '나이트메어'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초반 '이블' 무대에서는 빨간색 안대를 착용하고 완벽한 안무를 선보여 시작부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이어 '줄리엣' '루시퍼' '라이크 어 파이어' '드림걸' '걸스 걸스 걸스' '오르골' 등 히트곡을 선보였다. 국내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일본 싱글곡 '3 2 1'의 한국어 버전 최초 공개를 포함한 일본 앨범 수록곡 무대까지 총 29곡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샤이니는 2시간 30여 분 동안 남성미와 댄디가이, 풋풋한 느낌이 묻어나는 다양한 콘셉트 무대와 안무, 의상을 선보이며 쉼 없이 달렸다. 자신들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표현하며 샤이니의 음악 세계를 완벽하게 선보였다.

짜임새 있는 공연 구성에 29m 길이의 초대형 LED 스크린과 플로어 LED, 계단형 리프트 등으로 구성된 무대 장치 등은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샤이니는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 B.A.P 4대륙 20회 공연 스타트

B.A.P는 8~9일 4개 대륙 20회 공연의 서막을 알리는 단독 콘서트 'B.A.P 라이브 온 얼스 서울 2014'를 마쳤다.

B.A.P는 이날 공연을 앞두고 "우리가 데뷔 때부터 꿈꾼 게 투어 콘서트였는데 현실이 돼 기쁘다. 10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연을 만들겠다"고 4개 대륙 콘서트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멤버들의 등장을 앞두고 공연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줬다. 화려한 조명과 공연장을 흔드는 음향장치는 압권이었다. 여기에 파워 넘치는 무대와 로맨틱한 무대가 자연스럽게 교차되면서 3년차 그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해 2월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 '원샷'으로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연 B.A.P는 '배드 맨' '파워' 등의 곡을 통해 거친 랩을 쏟아내며 남성미 넘치는 매력을 발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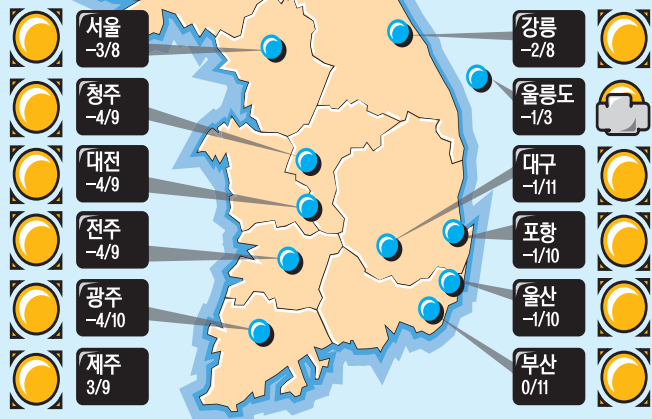
반면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러브식'과 재즈스러운 분위기의 '커피 숍' 등의 무대에서는 로맨틱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커피 숍'을 부르기 앞서 멤버들이 직접 커피를 관객들에게 나눠주며 호흡을 이어갔다.

리더 방용국의 자작곡 '큐'는 힘찬이 함께 무대에 올라 늦은 새벽 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조용히 들려오는 멜로디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공연은 '허리케인' '펀치' '전부 거짓말' '체크 온' '대박사건' '댄싱 인 더 레인' '하지마' '대박사건' 등 총 25곡의 무대로 2시간30여 분간 펼쳐졌다. '지구 정복'이라는 타이틀과 관련해 이들은 "현재 50% 성장한 것 같다. 최종 꿈은 세계적인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는 것이다. 월드투어를 통해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B.A.P는 이날 서울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아메리카와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순으로 투어 공연을 개최한다.

B.A.P가 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첫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며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로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TS엔터테인먼트 제공

롤러코스터 같은 공연… 놀라워요, B.A.P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씨에는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적절히 사용하고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7			
9			5					
	2		3			8		
5		3		9	1	2		
		1		6		4		
		2	8	4		9		3
		8			9		4	
					8			1
			6	7		5		

		5			8			2
				3	1		6	
		3	6			4		
	9	2					3	
	4			9			7	
	7					2	9	
		7			5	8		
	2		1	8				
4			9			6		

스도쿠 정답

1	8	4	9	2	7	3	6	5
9	3	7	5	8	6	1	2	4
6	2	5	3	1	4	8	7	9
5	4	3	7	9	1	2	8	6
8	9	1	2	6	3	4	5	7
7	6	2	8	4	5	9	1	3
3	7	8	1	5	9	6	4	2
2	5	6	4	3	8	7	9	1
4	1	9	6	7	2	5	3	8

9	6	5	7	4	8	3	1	2
2	8	4	5	3	1	9	6	7
7	1	3	6	2	9	4	8	5
8	9	2	4	1	7	5	3	6
5	4	6	3	9	2	1	7	8
3	7	1	8	5	6	2	9	4
1	3	7	2	6	5	8	4	9
6	2	9	1	8	4	7	5	3
4	5	8	9	7	3	6	2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어디서 만날 것인가

꽃샘추위의 한 주가 지나갔지만 햇살과 공기에서 봄을 느낀다. 겨우내 움츠렸던 육체와 더불어 마음이 말랑말랑 다시 살아숨 쉬기 시작한다.

얼마 전 한 회사의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느닷없는 질문을 하나 받았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사람은 대체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 느닷없었던 이유는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많이 받는 진부한 연애 상담 일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대학생 새내기라면 모를까 설마 일류 기업에 다니는 세련된 커리어우먼조차도 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이다. 한데 이렇게 진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것도 없다.

'애인 후보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가 대답하기 곤란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모범 답안이 이미 빤히 나와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줍어하지 말고 내가 애인을 구함을 주변에 널리 알려라. 가급적 지인들을 통해 소개를 많이 받아라. 우선 가까운 주변에서 잘 찾아봐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가능성을 높여봐라. 이 이상 해줄 말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어지는 반응들은 다음과 같다. '구차하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소개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안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이성으로 봐줄 만한 사람이 없네요' '회사 퇴근해서 퍼질러자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한데 다른 활동들을 할 여유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같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데 흥미로운 것은 그 와중에 참 다들 모범생이라는 것이다. 설사 수동성을 버리고, 눈을 낮추고, 여러 사교 활동에 참여한다 해도 '안 생겨요'라며 프로젝트에 실패한 사람처럼 자학하고 좌절한다. 그러지 좀 말자. 분명 인위적인 유통망 확장의 노력이 가능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대개 나머지 빈 부분은 우연이라는 운명이 채운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나만 해도 아무 감정도 없던 남자와의 '우연한 합승'으로 결혼까지 이르렀다.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대학원 학비부담 가능할까 다소 버거우니 다음 기회를

타임파워 여자 80년 11월 30일 음력 오전 7시37분

Q 올 초부터 돈이 자꾸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없네요. 가족들은 저만 바라보고, 사는 데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뒤에는 좋을 거라고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면 그러기도 힘든 거 아닐까요. 공부하자 생각해서 대학원 원서 넣어 거기에는 합격했지만, 그것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A 귀하는 똑똑하고 인정도 많지만 다정함이 많아 망설이거나 추진력이 부족하여 공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관인상생(官印相生:관이 인수를 생해줌)되는 5월에 직장운이 열립니다. 사무직이고 문서 관리가 되는데 관(官)으로 명예나 자존심을 중히 여겨 적성을 중히 여길 것이나 적성 유무에 맞지 않아도 일차적으로 선택해보십시오. 들어오는 것이 적으면 나가는 것을 줄여야 하며 현재 누가 뭐라 해도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운이므로 공부하려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으나 다소 버거운 상태가 되어 어렵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운세가 향상되어 이렇다 할 결과가 없지만 실망하지는 마시고 담아두는 시기가 올 테니 분발하십시오.

공부와 일 같이 하고싶은데 취업부터 하고 도전해 보길

꿈을잊지말자 여자 88년 4월 20일 새벽 5시50분

Q 사회복지 쪽 일을 원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인분들께서 막상 취업 시기가 되니 나 몰라라 등을 돌리고 취업을 2월 안에는 해야 했는데 허송세월 보내는 느낌입니다. 올해 취업 언제쯤 될까요? 그리고 공부를 병행하면서 일도 같이 할까 하는데 솔직히 나이 때문에 도전 자체가 무서워지기도 해요.

A 사주에 진취적인 기상이 있으며 학구열도 높습니다. 개미의 논리가 있는데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법칙에서 나온 것인데 4대 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마리의 일개미 중 1마리가 열심히 일하며 4마리는 공연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집단만 모아 새 집단을 만들었더니 또다시 1마리는 일하고 4마리는 논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나태한 그룹은 근면한 집단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의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일 것입니다. 공부를 병행한다는 마음은 훌륭합니다. 개미 논리를 새겨보고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의 개인적인 계획을 먼저 정리해둔다면 미래 발전을 거머쥐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10일 (음 2월 1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부정적 생각은 마음 병들게 한다. **60년생** 남의 흉을 보려면 제 허물부터 살펴라. **72년생** 투자한 곳에서 대박 터진다. **84년생** 상식 벗어난 길 가면 손해~.

49년생 나이 인정하되 의욕 잃지 마라. **61년생** 소원했던 배우자와 관계 복원된다. **73년생** 일은 밥벌이니 신성하게 생각할 것. **85년생** 몰래 한 선행에 박수가 쏟아진다.

50년생 돈 문제는 호전된다. **62년생**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지니 기다려라. **74년생** 문서 일은 행운이 따른다. **86년생** 연인이 진심을 몰라줘 딱한 노릇~.

51년생 논쟁에 끼어들면 잘해야 본전~. **63년생** 돈 문제는 해결된다. **75년생** 들이대는 것도 자리나 사람 봐가며 할 것. **87년생** 유행에 민감하면 얻는 게 많다.

52년생 변화보단 현상 유지가 좋다. **64년생** 운전으로 인한 사고 조심~. **76년생** 걱정했던 고비는 무사히 넘긴다. **88년생** 현재보다 도약하려면 위기의식 가져라.

53년생 환자는 건강 호전될 듯. **6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7년생** 뭐든 사두면 오른다는 생각은 버려라. **89년생** 귀인 마음 움직이려면 의지가 중요하다.

42년생 불안한 마음은 안정된다. **54년생** 백지장도 맞들어야 소리 나는 법~. **66년생** 떠난 버스는 빨리 잊어라. **78년생** 어려움 중에 웃을 일이 생긴다.

43년생 집안일은 직접 챙겨라. **55년생** 모처럼 관록 발휘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이성으로 인한 말썽 조심할 것. **79년생** 열등의식은 성공 막는 장애물이다.

44년생 마음이 바르면 결과도 바르다. **56년생** 근심은 구름 사라지듯 없어질 듯. **68년생** 자영업자는 큰 거래처가 생긴다. **80년생** 해묵은 소원을 이뤄 벅찬 하루~.

45년생 북쪽으로 출행은 삼가라. **57년생** 운기가 열려 매사 순조롭다. **69년생** 직장인은 트러블메이커 조심할 것. **81년생** 목적 이루었다고 초심 잃으면 내일은 없다.

46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58년생** 예상 못 한 방해꾼이 나타나 진퇴양난~. **70년생** 가정은 화목하고 의욕은 넘친다. **82년생** 연인의 마음을 잘 파악할 것.

47년생 마음먹은 일은 진행할 것. **59년생** 바삐 움직이나 소득은 별로다. **71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일을 기약할 것. **83년생** 성실하면 도우미가 나타난다.

17년의 기다림… LG 정규리그 첫 우승

준우승만 4번 '2인자 설움' 날려… 신·구 조화가 V 원동력

창단 17년을 맞은 창원 LG가 마침내 프로농구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LG는 9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95-85로 승리했다. 40승14패로 이날 전주 KCC에 대승을 거둔 모비스와 동률을 이뤘으나 상대 전적 골 득실(+9)에서 앞서 정규리그 1위의 영예를 안았다.

LG는 그동안 1997~1998, 2000~2001, 2002~2003, 2006~2007시즌 등 네 차례나 정규리그 2위에 오르는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려왔다. 정규리그 우승 한을 푼 LG는 내친김에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도 노린다. 4위 인천 전자랜드와 5위 부산 KT의 6강 플레이오프 승자와의 4강전으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LG는 이날까지 정규리그 13연승으로 프로농구 통산 다섯 번째로 라운드 전승을 달성했다. 이 같은 막강 전력은 노장의 경험과 젊은 선수의 패기가 조화를 이뤄 갖출 수 있었다.

시즌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외국인 선수 로드 벤슨을 울산 모비스에 내주고 비시즌 기간 포인트가드 김시래(25)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여기에 베테랑 문태종(39)을 거액(연봉 6억8000만원)을 주고 영입하는 등 우승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까지 손에 넣어 '경희대 3인방' 중 첫손에 꼽히는 김종규(23)까지 라인업에 채웠다. 탄탄한 전력을 정비한 LG는 시즌 초반부터 3위권 밖으로 나가는 일 없이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

김시래는 올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해 어시스트 252개로 리그 2위를 기록했다. 문태종은 젊은 선수들의 약점인 위기관리 부족을 메워주며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다.

LG와 마지막까지 정규리그 1위 경쟁을 벌인 모비스는 울산 홈경기에서 전주 KCC를 87-51로 대파했으나 상대 전적에서 밀려 2년 연속 정규리그 2위에 만족하게 됐다.

이날 경기 결과로 플레이오프 대진이 확정됐다. 3위 서울 SK와 6위 고양 오리온스의 6강전 승자가 2위 모비스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다툰다. 12일 전자랜드와 KT의 경기를 시작으로 6강 플레이오프는 막을 올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프로농구 전적 9일

팀	1Q	2Q	3Q	4Q	합계
전자랜드	25	19	26	25	**95**
SK	20	15	22	22	**79**
인삼공사	18	20	20	26	**84**
동부	11	15	14	25	**65**
오리온스	25	11	31	22	**89**
삼성	19	12	21	26	**78**
LG	25	23	17	30	**95**
KT	22	18	15	30	**85**
모비스	21	18	32	16	**87**
KCC	22	7	11	11	**51**
신한은행	26	20	17	15	**78**
삼성생명	10	20	17	14	**61**

프로농구 창원 LG 선수들이 9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홈경기에서 KT를 누르고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짓고 김진 감독을 헹가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화재 '코트 왕' 장기집권체제

3년 연속 정규리그 제패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3년 연속 정규리그 1위에 올랐다.

삼성화재는 9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방문경기에서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를 세트 스코어 3-1로 꺾었다. 이날 경기장에는 6520명의 관중이 들어찼고 삼성화재는 승점 65점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다.

초반 분위기는 현대캐피탈이 주도했지만 2세트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2세트 23-24에서 지태환이 조근호(현대캐피탈)의 속공을 유효 블로킹으로 막아냈고 레오가 오픈 강타를 꽂아 2세트는 삼성화재의 차지가 됐다. 현대캐피탈은 3세트에서 무너졌다. 고희진의 연속 블로킹에 가로막히고 리버맨 아가메즈·문성민의 범실이 이어지며 17-25로 참패했다.

삼성화재는 마지막 세트에서도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 외국인 선수 레오가 9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2013~2014시즌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격 성공률 66.21%를 보인 레오가 49득점을 기록해 경기 후반 들어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진 아가메즈(29득점)를 압도하며 승리했다.

삼성화재는 올 시즌을 앞두고 리베로 여오현이 자유계약선수(FA)로 이적하고 레프트 석진욱이 은퇴하는 등 전력 누수가 컸지만 특유의 '시스템 배구'로 약점을 최소화하고 다시 한 번 정상에 섰다.

반면 현대캐피탈(승점 61)은 3위 대한항공 점보스(승점 44)에 크게 앞서고 있어 포스트시즌에서 뒤집기를 노린다. /전효진기자 jeonhj89@

프로배구 전적 9일

팀	세트	세트	팀
현대캐피탈	1	3	삼성화재
한국전력	2	3	러시앤캐시
IBK기업은행	3	2	KGC인삼공사

24언더 박인비 시즌 첫승

LET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페테르센 5타차로 따돌려 유소연과 짝 단체전도 정상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2014시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박인비는 9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미션힐스 골프장 블랙스톤 코스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기록했지만 버디 8개를 잡아내며 6타를 줄였다.

전날 18홀 개인 최저타인 11언더파를 친 박인비는 이날까지 합계 24언더파 268타를 적어내 세계 랭킹 2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19언더파 273타)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최강자의 위용을 과시했다.

올 시즌 두 차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를 포함해 세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박인비는 강력한 도전을 받던 페테르센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됐다. 이날 페테르센과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 나서며 추격을 따돌렸다.

박인비는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과 짝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합계 544타를 쳐 중국(572타)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유소연은 개인전에서 합계 16언더파 276타로

박인비가 9일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4라운드 1번홀에서 버디퍼트에 성공한 뒤 인사하고 있다. /미션힐스 골프장 제공

단독 3위에 올랐다. 아마추어 선수인 호주 교포 이민지(18)가 15언더파 277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장하나(22·KT)와 전인지(20·하이트진로)가 공동 7위, 정예나(26)가 10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한국계 선수 6명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9일

홈	득점	득점	원정
경남	1	0	성남

△ 득점 = 루크①(후44분·경남)

홈	득점	득점	원정
상주	2	2	인천

△ 득점= 이정협①(후32분) 이호①(후40분·이상 상주) 남준재①(후30분) 이효균①(후43분·이상 인천)

홈	득점	득점	원정
제주	0	1	수원

△ 득점= 이용(후24분·자책골·제주)

'열애' 김연아 첫 공식행사… 인기 변함없네

사랑에 빠진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교제 사실이 공개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팬들과 만났다.

김연아는 9일 논현동 삼성 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팬사인회에 참석했고, 행사장 1층 야외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초청받은 50명과 선착순 50명 등 총 100명만이 사인을 받을 수 있어 팬들은 전날 저녁부터 줄을 서는 등 이날 오전 6시30분에 100명이 모두 채워졌다.

지난 6일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30·대명 상무)과 교제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던 김연아는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흰색 스웨터에 검은 목걸이를 한 화사한 차림으로 팬들과 만났다. 사인을 받지 못한 팬들도 행사장 밖에서 유리문 너머로 김연아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연아야, 사랑해"라고 외치는 등 열렬히 응원했다. /유순호기자

교보다솜이 가족자원봉사는 새로운 체험과 배움이 있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교보다솜이 가족자원봉사는 자연을 벗 삼아 휴식과 즐거움이 있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교보다솜이 가족자원봉사는 우리 가족이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교보생명과 함께하는 다솜이 가족자원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교보다솜이 가족자원봉사는 가족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참여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자원봉사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교보다솜이 가족자원봉사 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행사장소	모집기간
3월	새콤달콤, 다섯 가지 희망심기	3. 29 (토)	전주시청	2014. 3. 10~19
4월	도시숲 흙 살리기	4. 26 (토)	서울 현인릉	2014. 4. 2~15
5월	초록동네 지킴이 기획자원봉사	5. 31(토)	서울 영등포	2014. 5. 7~20
6월(1차)	가족농촌봉사활동	6. 14 (토)	진주 지수면	2014. 5. 21~31
6월(2차)	다솜이 가족자원봉사 캠프	6. 21(토)~22(일)	인천 장봉도	2014. 6. 1~10

※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다솜이 가족자원봉사 홈페이지(http://nanumfamily.kbedu.or.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다솜이 가족자원봉사는 연중 매월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 후 원 : KYOBO 교보생명
- 신청방법 : 다솜이 가족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nanumfamily.kbedu.or.kr)

※ 가족자원봉사에 최종 선정되어 참여한 분들께는 자원봉사시간(1일 8시간, 1박 2일 16시간)을 드립니다.

130-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0 교보재단빌딩
Tel : (02)925-8925 Fax : (02)925-3386
www.kbedu.or.kr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국민교육진흥'과 '인류문화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보생명보험(주)의 출연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배움의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는 사회, 더불어 함께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학사업, 교육 · 복지사업, 환경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